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lace Archiving Methodology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안정희(Jung-Hee Ahn)¹, 신유림(Yoorim Shin)²

E-mail: sungminjane@naver.com, shine@korea.kr



1 제1저자 기록문화연구 대표
2 공동저자 증평군 기록연구소

논문접수 2024.7.15
최초심사 2024.7.20
게재확정 2024.8.20

ORCID

Jung-Hee Ahn
https://orcid.org/0009-0008-3538-1276

Yoorim Shin
https://orcid.org/0009-0006-1392-2647

초 록

이 연구는 소멸된 장소의 기록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론연구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소 기록화의 의미를 밝혔다. 장소의 소멸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의 소실을 의미한다. 장소 기록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기억매개체의 상실에 대응하고, 공유기억의 부재를 해소하며, 공동체 정체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록의 이해당사자들을 기록의 생산주체로 복원하여 관련된 맥락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아카이빙 방법론이다. 이에 장소 기록화 현황과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기록화 실행 시 주민의 참여,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의 소통과 그 과정의 기록화, 문화예술 통합 프로젝트의 실행을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 사례를 이 세 가지 방안을 기준으로 설명하여 장소 기록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는지를 설명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trategies for documenting extinct places by clarifying the concepts of place and sense of place an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lace documentation. The disappearance of a place signifies the loss of a medium that evokes memory. Place documentation, a process of recording the sense of place, can restore memory media, resolve the lack of shared memories, and strengthen community identity. It also provides archiving methods and tools to involve stakeholders as record producers to enrich the context further. Thus, the study proposes key strategies, including resid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of place identity through archives, and cultural-artistic integration projects. The Jeungpyeong Archives' "Maryknoll Clinic" project serves as a case study based on these strategies to illustrate how place documentation is implemented.

Keywords: 장소, 장소 기록화, 주민참여 아카이빙, 메리놀병원, 지역아카이빙
Place, Place Document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Archiving, Maryknoll Clinic, Local Archiving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 공간은 생활패턴의 변화, 사회문화적 변동, 활발한 도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빠르게 변형, 소멸, 생산된다. 도시 내에서의 생활양식은 기술 발전, 경제적 조건, 인구 이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는 도시의 상업공간과 주거 공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 결혼과 출산율의 감소 등도 주거 형태의 변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주거 공간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맞물려 신속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오래된 건물이나 역사적 장소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로 대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의 잦은 변화와 소멸은 장소에 대한 연속적인 기억을 단절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급격한 도시화, 재개발 프로젝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장소 기록화는 소멸 위험에 처한 장소들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및 시간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장소의 상징적인 재현을 유지하며 거주민들의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장소 기록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거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장소의 고유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장소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기록할 수 있으며,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공동체 내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멸된 장소에 대한 기록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소 기록화의 실행 시 장소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화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화 과정의 주민참여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론연구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연구하고, 장소와 장소성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하였다. 장소 기록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국내 장소 기록화 사례와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장소 기록화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중평 메리놀병원 기록화 사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1.3 선행연구

1.3.1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연구로는 르페브르(Lefebvre, 1974/2011), 렐프(Relph, 1976/2005), 투안(Tuan, 2020) 등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공간(Space)은 주로 위치, 크기, 거리 등과 같은 물리적 차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장소(Places)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감정, 경험, 가치가 결합 개념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된다. 르페브르(Lefebvre, 1974/2011)는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람이 공간과 맺는 방식에 주목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들과 이러한 활동을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들은 모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이나 상식적인 감각으로 인지되는 일상공간이다.

이와 달리 도시계획가나 기술관료 등의 전문가가 계획한 공간이 있다.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한강공원, 문래예술

공간과 같은 공간들은 합리적 이성이나 기술에 의해 생산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 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들이 전문가에 의해 단기간에 구성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간생산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주체적인 체험과 작품화에 의해 물리적 공간을 회복하고 전유하는 실천행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렐프(Relph, 1976/2005)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장소는 소속감, 그 안에, 함께 있다는 동질감의 느낌을 받는 공간이자 내밀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우리는 보통 고향, 집,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러한 뿌리박힘의 소속감을 제공하는 '장소성'은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체성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루커만(Lukermann)에게 장소는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나는 자연과 문화의 통합이며, 다른 장소들과의 상호작용을 내포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곳으로 인간 행위의 바탕에 장소가 있고, 인간 행위는 다시 장소에 특성을 부여한다(안정희, 2021). 투안(Tuan, 2020)은 공간에 자신의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공간에 시간적 개념이 더해지고 그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개입으로 실존적 의미를 지니는 구체적 공간이 형성된다. 이 공간에 시각적, 지각적, 감각적 요소들이 개입하여 장소라는 통합적인 장소가 생성된다(남윤학, 2012).

정리하면 공간은 사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란 뜻으로 그 자체만으로 성격을 특정할 수 없어 균질적이고 추상화된 의미이다. 경험으로 기억되는 장소는 그 형성과정에서 시간적 질서를 지니게 된다. 공간에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시간에 따른 기억이 누적된 곳을 장소라고 할 수 있다(안정희, 2021).

1.3.2 장소 기록화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

장소 기록화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는 박정수와 유현준(2007), 안정희(2021), 옥윤중(2013), 최언희(2018) 등의 연구가 있다. 박정수와 유현준(2007)은 구 서울 역사(驛舍)를 재생과 보존·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물리적 구축을 제안하며 서울역사의 장소성 회복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옥윤중(2013)은 오늘날의 도시가 장소의 정체성인 역사적 맥락(context)을 잃어버린 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장소성의 상실은 도시 거주민에게는 과거의 상실이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이에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 공간(장소의 재연이 아닌, 이미지의 재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언희(2018)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기억, 지역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하였으므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공간이 가지는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지역주민의 기억으로 사업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정희(2021)는 공간에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공간에서 거주민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성의 개념을 연구하고 장소와 장소경험의 주체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소적 특성을 장소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의 지역 아카이빙과 전시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하여 이러한 기록전시가 장소 이전이나 소멸이 예정된 곳, 통폐합된 도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곳,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장소에 대한 기록수집과 전시를 아우르는 장소 기록화가 지역의 장소정체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1.3.3 장소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소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강병욱(2019), 박은영과 이성신(2018), 원다솔과 이민(2020), 정유진(2018), 필립스(Phillips et al., 2022) 등의 연구가 있다. 박은영과 이성신(2018)은 전통시장을 기록화한 사례조

사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소, 역사, 경험, 인물 요소를 전통시장의 장소성 구성요소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대중적 기능, 역사, 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행정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기록물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하였다.

강병욱(2019)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거리의 장소성을 기록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거리의 장소성 기록화의 구성요소로 공간, 시간, 장소성을 설정하고 다시 장소성을 활동, 의미, 물리적, 인적 요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강병욱(2019)은 장소 기록화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형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유진(2018)은 오늘날 지역이 강조되고 주목받으며 지역의 특정 장소를 문화자원화하는 현상을 ‘장소성’과 ‘재현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구 ‘달성’ 지역에서 지역자치단체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정체성 찾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조사하여 이와 같은 특성의 장소성 재현 사업이 특정한 시기의 장소성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달성 토성이라는 과거 유산이 현시점에서 재장소화되면 현재의 달성공원 장소성은 잊어버려도 되는 가치 없는 이야기인지를 물었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성 재현 행위들이 특정 집단이 아닌 지역 공동체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다솔과 이민(2020)은 지역 문화콘텐츠에는 장소에 대한 구술, 일상기록, 개인의 경험과 감정의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아카이빙 활동은 지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체 구성원은 지역의 기록자이자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립스(Phillips et al., 2022)는 아일랜드 웨クス포드 주 코트타운(Courtown, Co. Wexford, Ireland)지역 사회에서 해안 침식으로 인한 해변 손실에서 오는 장소 손실의 영향을 탐구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장소 손실의 경험과 정서적 어려움, 장소 손실과 적응 행동이 사람-장소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손실 이후 개인이 장소의 미래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사 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 부족이 미래에 대한 무력감과 불안을 조성하였으며 장소성과 지역 사회 응집력 약화를 증폭시켰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장소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장소 기록화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는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 연구와 장소 기록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록화할 대상을 문헌 조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기록화하는 방안이 주로 모색되었다. 이는 장소기록이 특정한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간들의 활동과 경험의 결과로 생산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이론이나 가정에서 시작하여 특정한 결론이나 사실을 도출하는 연역적 기록화 방법보다 구체적인 관찰이나 경험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이나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기록화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소가 주관적이며 장소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장소 기록화가 특정 시기의 장소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함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소기록의 특징을 반영한 장소 기록화의 방안 연구를 통하여 기록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

2.1 장소 기록화의 필요성

리코르(Ricoueur, 1983/1999)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라는 질문에 기억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통해 형성되고 장소와 시간의 흔적이 함께 공존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기억이 특정한 문맥과 환경에서 형성되고 이해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은 기억을 구체화하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경험한 사건은 그 장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며, 시간이 지나도 그 장소를 통해 기억이 활성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은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기억이 계속 기억으로 남아 의미를 생성하려면 물리적 매체로 재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억의 재구성 매체로 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기억은 공간을 통해 실체화되고 재구성된다. 장소는 과거에 생명을 불어넣어 현재에 존속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¹⁾을 재생산할 수 있다(Casey, 1987). 이에 장소의 소멸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의 소실을 의미한다. 기록은 기억을 영속화시키는 도구이며 ‘개인 및 단체 혹은 집단의 기억을 유지’하고자 기록관리를 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1, ISO 15489-1). 기록이 기억의 도구인 것은 기록을 통해 과거의 사람, 사건, 장소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의 기록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기록하는 과정이자 결과로, 기억매개체의 상실에 대응하고, 공유기억의 부재를 해소하며, 공동체 정체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 기록화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억매개체의 상실에 대한 대응이다. 도시화, 자연재해, 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 공간과 그에 관련된 기억이 소멸 될 위험이 있다. 이 장소들과 연결된 개인적, 집단적 기억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장소 기록화는 이러한 기억매개체들을 사진, 동영상, 구술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공유기억의 부재 해소이다.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기억은 그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하지만 도시화와 이주,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공유기억이 희박해질 수 있다. 장소 기록화는 사회구성원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네스미스(Nesmith, 2002)의 주장처럼 아카이빙이란 기록화 내지 기록화하는 행위를 통해 기억을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 정체감의 강화이다. 공동체의 정체감은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장소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장소 기록화는 이러한 공동체 정체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록화된 자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그 정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장소 기록화는 지역의 특정 장소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발견-재현-재장소화 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정체성을 다시 구성한다(정유진, 2018).

넷째, 장소 기록화는 아카이브에 다양한 서사를 구축하도록 한다. 앞서,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것은 시간에 따라 장소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마다 장소에 대해 각자의 경험이 존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공간은 특별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의미없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한 공간에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기억의 주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장소 기록화는 다양한 기록의 이해당사자들을 기록의 생산 주체이자 출처로 복원하여 관련된 맥락과 환경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 평행출처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기억주체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아카이빙 방법론이라 하겠다(안정희, 2021).

1) 알박스(Halbwachs, 1922/1992)는 개인의 기억은 불완전 과편화되어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집단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영위되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속 가능하며 과거 그대로의 기억이 아닌 기억하는 과정에서 가감, 재배치, 재구성되는 특징을 지니며, 사회 구성원에 의해 선택되며, 공간을 통해 실체화되고 재구성되는, 장소성을 가진다고 하였다(안정희, 2021).

2.2 장소 기록화 사례 연구

장소 기록화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 장소 기록화 사례를 기록화의 대상, 방식,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군산대 건축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지역재생연구센터는 ‘근대산업도시 장항읍 산업유산 조사 및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인 1936년대부터 1989년까지 장항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작은 도시, 장항제련소 사택단지를 기록화하였다. 지역재생연구센터는 장항제련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당시 이야기를 듣고, 기업사와 국가기록원 등을 찾아 계룡사택과 무궁사택 등의 원도면 기록을 수집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변천 과정을 살펴 흔적을 실측하여, 사택단지 배치모형과 직원 합숙소, 소장사택 등의 건물 모형을 제작하였다.

서울시는 문화재가 아닌 30년 이상된 근현대 건축물(비문화재건축물), 특별한 시간과 삶을 담고 있는 골목길, 공원, 시장 등의 환경을 ‘건축자산’이라 정의하고 ‘서울의 건축자산 근현대 시간 속 삶의 향기를 공유합니다’라는 건축자산공모전(2021.6.14.~6.25.)을 실시하였다. 구 샘터 사옥, 체부동 성결교회 등 도시공간에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해 동결보존이 아닌 가치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의미를 글로 쓰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픽으로 만들어 참여할 수 있었다.

드로잉을 통해 세운상가군 일대를 기록한 워크숍 결과물을 전시한 ‘세운도면 : 도시를 그리는 방법’(2021.6.19.~6.27.) 또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주민들과 공유한 사례이다. ‘세운은 대학’ 시리즈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세운상가 일대를 하나의 대학으로 삼아 주민들을 만나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시민들과 공유하였다. 세운상가는 기계금속-공구-조명-인쇄 등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으로 독특한 산업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볼 수 있는 도시구조가 현존하는 장소이나 재개발과 산업의 변화로 장소 소멸 중이다. 여기에서는 장소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시도하였다. 건축가, 기획자, 기록연구사가 지역 답사 프로그램과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을 기획하여 디자이너, 미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작가 10명이 그림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서는 2019년 4월 4일 속초, 고성 일대 대형산불로 불탄 용촌마을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산불 이전의 용촌마을의 기록들을 기증받기로 하였다. 용촌1리 청장년회는 용촌리 마을창고에 ‘마을기억창고’를 조성하고 그 안에 기증받은 농기구, 부엌살림 등의 오래된 물건, 폭설, 잔치 등의 개인사진, 입학과 졸업 사진 등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소멸된 용촌마을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고자 하였다. ‘마을기억창고’는 용촌1리 청장년회가 고성문화재단의 주민주도 문화도시 문화실험 프로젝트 발굴사업인 ‘꼬치꼬치 문화랩’에 선정되어 조성되었다.

성남시는 서울의 인구 과밀화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도시로 수도 서울로 대거 유입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작은 마을이었던 원도심은 빠르게 성장하여 커졌고, 이후에는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원래의 시가지와는 완전히 별개인 계획도시인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어 오늘날의 성남시가 되었다. 성남시의 산성동은 옛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에서 산성동으로 개명되었다가 2021년에 시작된 도심재개발로 사라졌다. 성남도서관은 산성동이 소멸하기 전인 2020년에 산성동의 옛 모습을 기록화하기로 하고 ‘우리마을 기억창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산성동의 옛 모습을 간직한 개인소장 사진, 물품, 기록물 등을 방문 접수받아 참가자 중 5명을 추천하여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수정도서관은 이렇게 수집된 기록들로 ‘산성 1989’ 기록코너를 조성하였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 전차로 확장을 이유로 헐린 돈의문(서대문)을 3D 기술로 복원하였다. 남아있는 철거 이전의 사진 자료와 함께 그리드법분석으로 통해 복원도면을 작성한 후 이 도면과 IT 기술을

결합해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로 복원하였다. 돈의문 박물관 앞의 정동사거리 네 곳에서 휴대기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재현된 돈의문을 체험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24년 현대화 사업을 앞둔 ‘부산공동어시장’을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유·무형의 자산을 기록화하기로 하였다. ‘부산공동어시장’은 60년 역사의 국내 최대 산지어시장으로 부산 시어(市魚)인 고등어의 고향으로 불리는 등 부산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장소를 이유로 선정되었다. ‘부산미래유산’은 부산 근현대사건과 인물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부산시는 2019년부터 매해 시민 설문조사와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부산미래유산을 선정한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비등록, 비지정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인 ‘도시기억 프로젝트(근현대문화유산 기록화사업, 지역리서치)’의 일환으로 2024년 3월에 영업을 종료하고 올해 철거에 들어가는 유성호텔 기록화를 추진하였다. 대전시는 1966년에 개장하여 58년간 유성온천을 지켜온 유성호텔의 폐업을 유성온천의 쇠락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자 6, 70년대 신혼여행지 등의 장소 소멸로 보고 사진과 영상촬영, 도면화 작업 등과 함께 숙박부, 객실 번호판 등 유성호텔의 경영과 운영 상을 보여주는 각종 기록물을 수집하고 직원들과 이용객들의 구술채록 등을 통하여 기록화하였다.

<표 1> 장소 기록화의 다양한 접근법

대상(기록화 년도)	주체	방식
돈의문(2019)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헌조사, 3D 복원, 앱 전시
장항제련소 사택단지(2020)	군산대 지역재생연구센터	인터뷰, 수집, 모형제작, 전시
산성동(2020)	수정 도서관	수집, 기록서가 형성
서울시 건축자산(2021)	서울시	수집, 콘텐츠 제작
세운상가(2021)	시민단체	문화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 전시
고성군 용촌마을(2022)	고성군 문화재단	수집, 박물관 조성, 전시
부산공동어시장(2023)	부산시	설문조사, 표식설치, 홍보영상제작, 답사프로그램 운영
유성호텔(2024)	대전시	인터뷰, 수집

‘장항제련소 사택단지’ 기록화는 당시의 거주민들의 공간 사용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여 모형을 제작으로 장소를 재현하고자 하였고 ‘서울시 건축자산’ 기록화는 서울시의 건축자산(교회, 사옥 등)을 특정한 후 그 장소에 대한 개별적인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였다. ‘서울시 건축자산’과 ‘부산공동어시장’, ‘유성호텔’ 기록화는 국보 및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등 기존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일상 공간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으로 정하고 그곳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수집하였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은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로컬리티의 장소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건축자산’과 ‘세운상가’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콘텐츠화하는데 주목하였고 ‘산성동’과 ‘고성군 용촌마을’ 기록화는 주민의 소장기록 수집에 초점을 맞추었고 ‘돈의문’ 기록화는 현재 주민들의 체험공간 조성에 주목하였다.

장소 기록화 사례를 통해 ‘돈의문’ 기록화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의 일상 공간(주택, 시장, 직장, 숙박시설 등)이 기록화 대상이며,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인간의 활동과 경험이 기록화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2.3 장소 기록화 방안 연구

앞 절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장소 기록화는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의 특성과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는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기록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소 기록화는 공간과 시간, 인간 활동의 상호관계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장소 기록화의 목적은 대상의 재현을 위한 '기록의 수집 및 생산'만이 아님을 의미한다. 설문원(2012)은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활동은 곧 공간 자체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과 함께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으므로 장소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소 기록화를 실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며 장소 경험을 기록으로 생산하는 작업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집 중심의 기록화 방안보다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와 공감의 네트워크의 장²⁾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설문원, 2012).

이에 본 연구는 장소에 특성을 부여한 사람들의 장소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장소 기록화의 주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산공동어시장'의 설문조사는 주민에게 직접 로컬리티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음으로서 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건축자산'과 '세운상가'의 사례는 문화예술(글, 그림, 그래픽, 드로잉 등)활동이 '장소 기억을 적극적으로 남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의 기록자이자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원다솔, 이민(202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장소 기록화에서 전시는 기록화 산출물의 결과물 진열인 동시에 장소성의 '공유와 공감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기록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문헌조사와 '장항제련소 사택단지' 기록화와 고성군 용촌마을 '마을기억창고' 등의 사례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소 기록화는 장소 이전이나, 소멸이 예정된 곳, 대규모 개발이 진행된 곳, 기능이 쇠퇴한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시장은 소멸된(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실제적 장이다. 더욱이 특정의 장소성 재현은 특정한 시기의 장소성을 재구성(정유진, 2018) 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는 '장소 담화의 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전시가 장소 기록화를 계획할 때 지속적인 장소성의 획득 방안의 하나로 기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멸된 장소 기록화를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의 참여이다. "수집된 기록의 관리보다 사회구성원 간에 장소성의 전달, 체험, 탐구, 이해,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장소성의 회복과 새로운 장소성의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안정희, 2021) 먼저 어떤 장소를 기록화하면 좋을지를 지역민에게 묻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장소 기록화는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킨다. 주민들이 직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장소의 가치와 의미의 재발견인 동시에 지역적 특성과 요구가 기록화에 반영되어 지역의 고유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주민의 장소 선정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2) 설문원(2012)은 Cox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을 처음부터 지역사의 모든 영역을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그려나가는 망라적 기록화 전략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전략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지방도서관에 의해 지역사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록화의 목적에 맞게 영역을 미리 정하고, 각 영역 내에서 대상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기록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더욱이 로컬리티가 특정 공간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장소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 로컬리티 탐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기록화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집 중심의 기록화를 넘어 지역문화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기록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지방의 기록이 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서지적 통제가 미흡하여 존재여부와 소장처 파악이 어려우므로 참여를 통한 기록화 접근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교육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록관³⁾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담화와 그 과정의 기록화이다. '장소'의 정체성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장소에 담긴 이야기를 구현한다. 저마다의 장소를 이야기할 장이 필요하다. 또한, 장소 기록화를 지역 기록관에서 기획, 운영함으로써 그 과정의 결과들이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아카이브에 구축될 수 있다.

안정희(2021)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서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장소 기록화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인천시의 세관 옛창고의 세관창고전시, 서울 강동문화재단의 '구천면로를 기억하다' 도시 아카이빙 프로젝트, 제천시의 '사라져가는 마을역사 기록',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과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연초제조장 65년사' 등은 모두 장소 기록화 사업이었으나 프로그램이나 행사 및 전시가 종료된 후 수집된 기록들은 아카이브에 구축·관리되지 않았다.

장소 기록화 프로젝트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수집된 기록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거나 활용되지 않아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아카이브 구축 없이 기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거나 잊혀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카이빙 활동 과정에서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구체화하고 저마다의 장소 기억을 공유하며 장소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므로, 과정의 기록화와 아카이브의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장소 기록화 산출물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소 기록화를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기획한다. 이는 특히 장소의 물리적 복원이 불가능할 때 그 장소의 본질과 정체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화예술 작품은 장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서로의 장소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며, 각자의 시각에서 장소를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서울시 건축자산'과 '세운상가'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장소에 대해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 작품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시킨다. 예술 작품은 장소의 이야기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 시간이 지나도 그 장소의 기억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예술 작품을 통해 소멸된 장소의 이야기를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 장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공간에 부여한 가치와 의미, 시간의 축적으로 형성된 장소성에 공감하고, 표현, 창작, 실연하는 행위들을 콘텐츠화 하는 방안을 기록화를 하기 전에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콕스(Cox, 1993)는 '공공기억'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의 폭넓은 대중활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공기억의 개념을 '정부 및 시민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 의한 과거에 대한 인식 및 이용'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역할을 모색하였다(김명훈, 2014). 이를 통해 콕스(Cox)는 아카이브는 기억의 자원이 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억의 장소로서 아카이브의 보다 활발한 대중적 활용을 위해 홍보 아웃리치 공공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여 공공기억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본 연구에서 기록관이라 함은 지역의 기억과 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적, 보존하면서 주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갖춘 문화기관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기록물 관리에 전담하는 기록관과는 차이가 있다.

3.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 기록화 프로젝트

3.1 주민에 의해 기록화 할 장소로 선정된 ‘메리놀병원’

2장에서 장소 기록의 특징을 고려한 장소 기록화의 주요 방안으로 주민의 참여, 지역주민들의 장소에 대한 담화와 그 과정의 기록화, 문화예술작품 창작 과정의 기획을 제안하였다. 장소 기록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자 증평군 장소 기록화 사례를 세 가지 방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증평군은 2017년부터 지역 정체성을 기본계획의 한 축으로 설정한 기록관 중심의 다양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 농촌다움 복원 공모사업’에 지역 기억으로 지역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농촌을 기록해요,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다.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추진의 주요 방향이자 전략은 주민주도의 아카이빙이었다. 이에 따라 증평 아카이빙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우선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결과 ‘메리놀병원’이 기록화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증평 주민들에게 ‘메리놀병원’은 증평성당, 메리놀수녀원, 메리놀수녀원이 운영한 증평 천주교메리놀병원을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진료, 교육, 복지 활동이 이루어진 추상적 공간이었다(증평기록관, 2021a). 다음은 기록 수집과 주민 인터뷰를 통한 증평 메리놀병원의 역사이다.

1955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 복구와 의료사업 지원에 주력하던 메리놀외방진교회 한국지부는 의료 불모지인 충북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증평지역 인사들이 증평에 병원을 유치하고자 청주교구청을 방문하고 사비를 들여 성당에 땅을 기부하면서 수녀원과 병원이 동시에 건축·설립되었으며, 증평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이라는 위상을 갖게 된다.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로 시작한 병원은 진료를 잘한다는 입소문이 나 멀리 제주도에서도 방문하는 등 환자가 줄을 이었고, 직접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인근 괴산, 진천, 음성, 청주 등 17곳으로 순회진료를 하기도 하였다. 산전검사, 결핵치료, 뱀독 치료, 예방접종 등의 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치료비 감면, 4-H 운동과 여성직업교육, 모자보건교육, 위생교육, 학생간호사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1975년에는 증평메리놀병원이 의료비의 1/3을 부담하는 가정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국민의료보험으로 통합되기까지 농부, 저임금노동자 등 9,615가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헌신적 활동으로 1979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증평의 공중보건상태가 좋아졌고,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자, 메리놀수녀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1990년에 병원을 폐업하였다. 폐업된 병원 건물은 증평성당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철거되었고, 수녀원 건물은 현재 성당 내 교육장소로 사용 중이다.

증평 주민들에게 ‘메리놀병원’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면서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감사의 대상이고, 환자가 7, 800미터나 길게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로 기억되기도 하는 장소이다. 특히 주민들이 병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고, 여성, 어린이,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지만, 2015년 낡은 병원 건물이 성당의 주차장으로 쓰이기 위해 철거되고 부속 건물이었던 시약소만 남겨졌다. 그 과정에서 ‘메리놀병원’이라는 장소와 함께 관련 기록물도 유실되었다.

3.2 기록수집과 그림제작 과정

증평기록관은 증평기록 기획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메리놀병원’ 기록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였다. 문헌조사

를 통해 기록 수집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잠재적 소장처를 개발하였다. 주민 인터뷰 및 증평문화원, 미국 메리놀아카이브 등의 기관과 접촉하여 관련 기록을 수집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증평 ‘메리놀병원’은 1956년부터 1990년까지 증평사람들의 주체적, 의지적 선택의 공간이자, 치료, 생활, 종교, 복지, 교육의 복합적 공간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공존과 희망의 공간임이 확인되었다(증평기록관, 2021a).

그러나 수집된 기록들은 총 27건으로 소량이었고 대부분이 미국 메리놀아카이브가 소장한 증평천주교메리놀병원의 업무일지였다. 이를 통해 병원 설립배경, 운영 및 폐업 등 병원의 이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메리놀병원의 장소성을 증거할 기록들이 부족하였다. 더욱이 소멸된 ‘메리놀병원’을 포함한 증평성당 전체 공간의 모습을 조망하는 기록물은 1건도 없었다. 이는 공공기록과 달리 주민들의 일상공간에 대한 기록은 생산과 보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집 중심의 기록화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중시하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증평기록관은 ‘메리놀병원’을 우선 기록화할 증평의 주요 장소로 선정하고 과거 장소의 물리적 재연(再演)이 아닌 이미지의 재현(再現)으로 메리놀 장소를 복원하기로 하였다(증평기록관, 2021b). 기록관 공간을 증평사람들의 메리놀에 대한 기억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과 예술가와의 협력적 기록활동으로 장소를 복원하는 ‘증평 아카이빙을 위한 그림제작’ 사업을 기획하였다.

사업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수집된 기록과 병원에 근무했던 주민 인터뷰를 통해 ‘메리놀병원’의 장소와 공간을 증평성당, 수녀원, 수녀의원, 시약소, 순회진료 등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화가가 그림 초안을 그릴 수 있도록 성당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였다. 당시에 증평성당과 같은 청주교구이며 본당이 증평성당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세종시 부강성당의 자료(김명선, 이정우, 2020)를 조사하여 증평 ‘메리놀’ 공간 또한 같은 건축가가 설계·건축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병원의 외부, 내부, 측면을 상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수집되자 본격적인 그림제작이 시작되었다.

<표 2> 증평 ‘메리놀병원’ 기록 수집 과정

키워드 도출	잠재적 소장처 개발	리드 및 케이스파일 개발	수집기록 정리 및 기술
메리놀	미국메리놀아카이브	미국메리놀아카이브	문서철 1개 (문서기록 6건) 사진기록 21건
메리놀병원	메리놀외방선교회한국지부	한국메리놀수녀회	
문금산신부	가톨릭신문	증평성당	
문금산신부송덕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증평문화원	컬렉션 1 시리즈 2 철 3
의료	가톨릭대학교 의료역사박물관	요안나수녀	
의료보험조합	부산메리놀병원	돌로레스수녀	
종교	한국신용협동조합	강신욱	
주은로신부	괴산군의회	김운기	
증평성당	충청북도	전예근	
천주교주택건설사업	초중성당	최진성	
초가성당	천주교 청주교구	최성균	
	한국의료보험공단		
	(재)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4) 1950년대와 1960년대 충북 청주교구의 건물은 당시 교구 책임자인 James V. Pardy 주교와 일제 강점기 평양에서 메리놀성당 건축을 보조한 박태봉이 주도하였다. 두 사람은 Pardy 주교 재임시절 충북에 총 21개의 성당을 건축하였는데 성당, 목사관, 수녀원, 선교센터 등을 한 터에 짓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미국 메리놀 외방선교회와 같은 북미식 교회 건축 양식이었다. 복도가 있는 단층집의 설계를 증평에서 처음 시도하였다(Lilly, 2002).

화가는 수집된 기록, 시약소와 같이 남아 있는 공간을 실사하여 성당, 수녀원, 병원의 전체 공간을 드로잉하고 장소마다 있었던 행위(진료, 검사, 구호품 보급, 교육)들을 상상하여 그렸다. 당시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이 그림들을 복사하여 배부하자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각 건물의 방향, 창문의 위치와 모양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까지 활발하게 회상되었다. 여름밤 동네 공원에서 주민들은 이 그림을 놓고 메리놀병원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화가는 2차 그림을 그렸고 다시 주민을 인터뷰한 후 최종적으로 채색하여 그림을 완성하였다. 증평기록관은 이 그림들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병원 내부공간을 재현하였다(그림 2). 평면이 아닌 3D로 제작된 공간을 본 주민은 더 구체적인 기억⁵⁾을 떠올렸고 이를 다시 반영하여 소멸된 메리놀병원을 복원한 메타버스는 더욱 정교해질 수 있었다.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증평기록관이 메리놀이라는 이야기의 장이 되자 ‘메리놀 병원’과 관련한 기록들이 추가로 발굴, 수집⁶⁾되었다.

3.3 주민의 장소 담화의 장, 전시

여(Yeo, 2007)는 기록은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로 기억의 소환이나 보강, 확장 의 어포던스(affordance)⁷⁾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설문원, 2019). 이미지로 복원된 메리놀병원 그림 기록은 증평주민들의 기억을 확장시키고 기억은 다시 주민들의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증평기록관은 ‘메리놀병원’의 활동이 정리되고, 여러 유형의 관련 기록이 수집, 생산되면서 두 번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첫 전시인 <증평, 기록의 정원>(2021.12.14.~2022.3.31.)에서는 ‘메리놀병원’을 스토리텔링 한 세션을 중심에 배치하였다. 기록전시는 그 자체가 소통의 장을 형성하였다. 전시회의 개막식에 ‘메리놀병원’ 개원 당시 간호사였던 요안나 수녀가 참석⁸⁾하였는데, 병원 직원이었던 정기선과 수십 년 만에 감동적으로 재회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며, 전시를 관람한 주민들이 기록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⁹⁾하였다.

5) 정기선은 작업이 진행 중인 메타버스를 확인하며 환자대기실 의자가 놓인 방향, 환자 기록카드 보관용 서랍장의 형태와 위치 등을 기억해 냈다.

6) 24건의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5종의 리드 및 케이스파일도 추가로 개발되었다. 또한 장소 복원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10건의 드로잉과 12건의 채색그림이 생산되었다. 메타버스 제작 과정에서는 1건의 인터뷰영상, 1건의 메타버스 체험영상이 생산되었다.

7) Yeo(2018)는 기록 자체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어포던스는 이용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증거는 기억을 확장하고 기억은 거꾸로 정체성의 의미를 입증하는 것을 돕는다. 기록의 어포던스는 기억, 설명력, 권력의 합법화, 개인이나 사회적 정체성과 지속성, 공간과 시간을 아울러 그러한 편익들을 소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정보와 증거에 대해서, 어포던스는 기록에 의미의 보고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록물의 관리 혹은 이용의 어떤 단일 측면을 넘어서는 풍부한 어포던스를 의미한다(Yeo, 2007).

8) 요안나수녀는 인사말을 통해 본인을 비롯한 수녀들은 증평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였는데, 소멸된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 지낸 외국인 수녀와 증평 주민들이 같은 마음과 기억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9) 증평을 덕상리 주민 김기녀, 구중순, 김임순은 <증평, 기록의 정원> 전시 관람 이후 ‘메리놀병원’이 있던 증평성당과 시약소를 살펴보고 인터뷰 기록을 남겼다(그림 4).



[좌]중평 메리놀병원 개원 당시 근무했던 요안나 수녀가 그림기록을 살펴보며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우]주민들이 <중평, 기록의 정원> 전시를 관람하며 메리놀병원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고 있다.

<그림 4> 메리놀병원의 기록과 전시를 살펴보는 간호사와 주민

‘공유와 공감’은 주민참여를 통해 생성된 예술 작품이 전시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진 그림은 그들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담고 있으므로, 장소에 대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연결감을 증진시키며, 장소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즉 전시를 통해 ‘장소’의 이야기를 새롭게 드러내고 재현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기억이 강화되고 그들의 경험이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고 평가된다. 이 과정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전시는 지난 해 개최된 <중평, () 집>(2023.8.30.~10.30.)이다. 전시는 ‘메리놀병원’이 있었던 장소를 포함한 중평읍의 원도심 거리와 이에 인접한 옛 성모유치원의 폐건물에서 개최되었는데 미술, 디자인, 건축, 전시, 영상 분야의 다양한 예술가는 물론 주민과도 협업하였다. 첫 전시 이후 추가 수집된 기록, 그림기록과 메타버스 체험 영상, 주민과 메리놀병원 관계자의 인터뷰 영상, 인터뷰 글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통일감 있게 디자인되어 거리와 전시장에 펼쳐졌다. 또한 주민 기억으로 그려진 ‘메리놀병원’의 그림기록을 참조하고, 수집기록과 주민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한 그림에 작가의 상상력까지 더해진 예술로서의 그림기록이 추가 생산되어 함께 전시되었다(그림 5, 그림 6).



[좌] ‘메리놀병원’이 소멸된 장소의 거리전시 모습. 장소를 기록물, 장소가 위치한 주민들의 일상공간을 아카이브로 구조화하였다. 장소에는 이름, 설립일, 유형, 소재지, 개요 등의 메타데이터가 라벨링 되었고, 장소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 주민의 인터뷰 글이 곁들여 졌다.

[우] ‘메리놀병원’ 기록으로 채워진 실내전시 모습. 수집기록과 함께 주민의 기억으로 재현된 ‘메리놀병원’의 그림제작 과정이 진열되었다.

<그림 5> <중평, () 집>(2023) 전시의 ‘메리놀병원’ 세션

장소성은 물리적 공간과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통합되어 다차원적인 구조를 이루며, 다양한 시간대의 기억들이 같은 장소에서 중첩되어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제작된 그림기록과 기술(description)에는 메리놀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러한 중첩적이고 다원적인 장소성이 반영되었다.



[상] 그림 : 노성욱, 생산일 : 2021, 방법 : 종이에 채색
 [하] 그림 : 이정수, 생산일 : 2023, 방법 :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메리놀병원’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과 주민기억을 통해 그렸다. 1956년 함께 건축된 증평성당, 수녀원, 증평천주교메리놀병원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 파디(James V. Pardy) 신부와 박태봉 건축사는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와 같은 북미식 교회 건축 양식(라틴십자가형 평면)에 충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목조 트러스 위에 기와를 얹어 지붕을 만들고 내부 바닥 마루를 깔고 천장은 목조 평천장을 건립하였다. 수녀원과 병원 건물의 가운데는 정원이 있는 구조였다. 1960년대까지 운영되던 인근의 증천(웅기골) 가마터에서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성당, 수녀원, 사제관, 병원을 모두 같은 시기에 건축하여 벽돌색의 차이로 증축 및 개보수를 알 수 있다. 당시 성당 뒤편은 삼일아파트가 건립(1992년)되기 전으로 단층의 주택들이 있었다. 장날에는 병원에서부터 대기줄이 신궁전예식장(옛 증평읍사무소)까지 길게 서 있었고, Mary Augusta Hock(책입수녀)이 줄을 선 환자 중에 중증환자들을 먼저 진료실로 보내고 환자들에게 대기표를 발급하였다는 병원 직원 정기선의 인터뷰가 있었다. 상단 그림에는 마당이 돌로 그려졌으나 실체는 진흙이었다는 병원 직원 홍석원의 인터뷰로 하단과 같이 그림이 수정되었다. ‘메리놀병원’ 기록화가 진행되면서 축적된 기록과 주민기억이 반영되어 그림기록이 보다 분명해졌으며, 협업한 작가의 예술가적 상상력까지 더해져 주민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게 드러났다. 다만 기억과 기록정보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한 장의 그림기록에 다양한 시대가 혼재하고 있다.

<그림 6> 증평 ‘메리놀병원’ 그림기록과 기술

소멸된 장소에서 펼쳐진 거리 전시와 소멸될 옛 성모유치원에서의 실내 전시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펼쳐져 더욱 많은 주민이 ‘메리놀병원’을 기억하며 장소의 소멸을 아쉬워하였고, 기억의 한계와 기록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기록을 매개로 소멸된 장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오늘날 그 장소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민의 기억으로부터 시작하여 관련 기록이 모이고, 이것이 전시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기억과 기록을 만들어낸 ‘메리놀병원’ 프로젝트는 온라인 전시를 위한 ‘증평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와 영구 보존을 위한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¹⁰⁾로 기록물과 콘텐츠가 관리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소멸되지 않을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소멸된 장소를 기록화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그 접근법을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론 연구를 통해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소 기록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밝혔다. 장소의 소멸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의 소멸이기도 하다. 장소 기록화는 공간의 장소성을 식별하고 보존하는 절차로서, 기억의 매개체 상실에 대응하고, 공유된 기억의 결여를 해결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기록의 생산자로 재구성하여, 관련된 맥락을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는 기록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의 장소 기록화 사례를 기록화의 대상, 방식, 주체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지역의 일상 공간을 기록화한 사례를 통해, 장소에 특성을 부여하는 개별적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장소 기록화의 중요한 영역으로 정리하고, 공간과 시간, 인간 활동의 상호관계가 기록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소멸된 공간의 기록화가 단순한 공간의 물리적 변화 이력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장소 기록화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수집 중심의 기록화보다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설문원, 2012). 즉 장소 기록화는 실물 기록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장소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 기록화 실행 시 '주민의 참여', '장소성에 대한 담화와 그 과정의 기록화', '문화예술작품 창작 과정의 기획'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세 방안은 모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이어서 장소 기록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을 제시하기 위해, 증평기록관의 메리놀병원 기록화 사례를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민참여가 연구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지만 기록화할 장소 선정에 대한 구술 인터뷰와 문화예술작품 창작 과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민참여의 깊이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정량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예산, 자원, 지역적 특성 등의 요인이 기록화 실행 수준 및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과 학문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장소 기록화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여 이 연구 결과의 일반성과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욱 (2019). 거리의 장소성 기록화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김기녀, 구종희, 김임순 (2023.7.5.). 메리놀병원 경험 주민 면담 [인터뷰].
김명선, 이정우 (2020).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좌성당의 건축적 특징. 한국산학기술학회, 21(9), 259-268.

10) 증평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https://larchiveum.net/>)는 증평기록관 전시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온라인 공간으로 준비와 운영 과정, 기록물, 콘텐츠를 전시 개막과 동시에 공개하였다. 전시가 디지털을 통해 전달되면서 소멸된 장소에 대한 기억 재소환, 새로운 기록의 발굴, 이야기의 장을 통한 공동체성의 확인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더욱 넓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https://archives.jp.go.kr/>)에는 '증평 통합 메타데이터'를 통해 정리, 기술된 기록물이 축적되었다.

<https://doi.org/10.5762/KAIS.2020.21.9.259>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https://doi.org/10.20923/kjas.2014.42.003>
- 남윤학 (2012). 장소정체성 구축을 통한 문화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선유도 공원 곤충 테마문화시설 계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박은영, 이성신 (2018). 전통시장의 장소성 기록화를 위한 구성요소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61-83.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2.061>
- 박정수, 유현준 (2007). 구 서울역사의 장소성 회복에 관한 연구 : 재생적 차원에서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7(1), 185-188.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https://doi.org/10.20923/kjas.2019.59.005>
- 안정희 (2021). 전시의 문화정치학과 기록관의 공간정체성.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옥윤중 (2013). 이미지를 통한 기억 재인식의 공간으로서의 왜관 낙동강 기념관 계획.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원다솔, 이민 (2020). 아카이빙 개념을 융합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 연구 - 일상의 장소로서 지역을 기록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38(3), 167-180. <https://doi.org/10.17548/ksaf.2020.06.30.167>
- 정기선 (2021.7.28.). 메리놀병원 근무 직원 정기선 면담 1 [인터뷰].
- 정기선 (2022.11.15.). 메리놀병원 근무 직원 정기선 면담 2 [인터뷰].
- 정유진 (2018). 장소기록과 기억 그리고 로컬리티-대구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와 재현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춘계공동, 99-121.
- 증평기록관 (2020). 증평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제3권. (73-5570000-000055-01). 증평군.
- 증평기록관 (2021). 증평 디지털 주제 아카이브. 출처: <https://larchivium.net/>
- 증평기록관 (2021a). 증평기록 기획수집 및 증평군 개청운동 아카이빙 용역 사업결과보고서 제1권. 증평군.
- 증평기록관 (2021b). 증평 아카이빙을 위한 그림 제작 용역 사업 결과보고서. (73-5570000-000070-14). 증평군.
- 증평기록관 (2022).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 출처: <https://archives.jp.go.kr/>
- 최언희 (2018).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에서의 아카이브 기능활용 방안 : 마포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홍석원 (2021.9.16.). 메리놀병원 근무 직원 홍석원 면담 [인터뷰].
- Casey, E. S. (1987). Remembering : A phenomenological study. Studies in phenomenology and existential philosoph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Cox, R. J. (1993). The Concept of Public Memory and Its Impact on Archival Public Programming. Archivaria, 36, 122-135.
- Halbwachs, M. (1922). On Collective Memory. Edited,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Lewis, A. C. (199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 General (ISO 15489-1).
- Lefebvre, H. (1974).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옮김(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 Lilly, R. (2002). Mission in the South : A Korea Region History(1942-2002). 서울: 도서출판 오늘의말씀.
- Nesmith, T. (2002). Seeing Archives: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The American

- Archivist, 65(1), 24-41. <https://doi.org/10.17723/aarc.65.1.rr48450509r0712u>
- Phillips, C., Murphy, C., & Bresnihan, P. (2022). The impacts of and responses to place loss in a coastal community in Ireland. *Local Environment*, 27(7), 879-896. <https://doi.org/10.1080/13549839.2022.2078294>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Ricoueur, P. (1983). Temps et récit. 김한식, 이경래 옮김(1999). 시간과 이야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윤영호, 김미선 옮김(1983). 공간과 장소. 서울: 사이.
- Yeo, G. (2007). Concept of Records (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s*, 70(2), 315-343. <https://doi.org/10.17723/aarc.70.2.u327764v1036756q>
- Yeo, G. (2018). *Records, Information and Data: Exploring the role of record keeping in an information culture*. London: Facet Publishin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Junghee (2021). A Study on Cultural Politics of Exhibition and Spatial Identity of The Archiv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 Choi, Un Hee (2018). How to utilize archive function in urban reproduction through culture - Focused on the Mapo OIL TANK Culture Park Bas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
- Hong, Seokwon (2021.9.16.). Interview with Merinol Clinic staff Hong, Seokwon [Interview].
- Jeong, Gi-Seon (2021.7.28.). Interview with Merinol Clinic staff Jeong, Gi-Seon 1 [Interview].
- Jeong, Gi-Seon (2022.11.15.). Interview with Merinol Clinic staff Jeong, Gi-Seon Interview 2 [Interview].
- Jeong, You-Jin (2018). Records of Place, Memory, and Locality - Focusing on place archives and representation of 'Dalseong', Daegu.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nference papers, 99-121.
- Jeungpyeong Archives (2020). Jeungpyeong Archiving Project Basic Planning Research Report Vol.3 (73-5570000-00055-01). Jeungpyeong county.
- Jeungpyeong Archives (2021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Jeungpyeong records planning collection and Jeungpyeong -gun opening movement archiving service project 1. Jeungpyeong county.
- Jeungpyeong Archives (2021b).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painting record production service project for Jeungpyeong archiving (73-5570000-000070-14). Jeungpyeong county.
- Jeungpyeong Archives (2022). Jeungpyeong Digital Archives. Available: <https://archives.jp.go.kr/>
- Jeungpyeong Archives (2022). Jeungpyeong Digital Subject Archives. Available: <https://larchiveum.net/>
- Kan, Byunguk (2019). The Study on Direction for Documenting the Placeness of Streets.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Korea.
- Kim, Ki-nyeo, Koo, Jong-hoe, & Kim, Im-soon (2023.7.5.). Interview with experienced residents of Merinol Clinic [Interview].
- Kim, Myoung-Hun (2014). A Study on Roles of Archival Science for Building Social Memor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3-35. <https://doi.org/10.20923/kjas.2014.42.003>
- Kim, Myungsun & Lee, Jeong-Woo (2020). Architectural Features of Naedeok-dong Cathedral, Cheongju Diocese under the Jurisdiction of Maryknoll Missio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cooperation Society*. 21(9), 259-268. <https://doi.org/10.5762/KAIS.2020.21.9.259>

- Nam, Yun Hak (2012). A Study on Plan of Cultural Space through Establishing Space Identity—Focusing on the Plan of the Insect—theme Cultural Facilities in Sunyugo Park.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 Ok, Yun—Jong (2003). A Space of memory recognizing through visual cognition of image : Wae—Gwan Nak—Dong River Memorial.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Korea.
- Park, Eun Young & Lee, Seongshin (2018). Suggestions for Archiving Elements for Placeness of Traditional Marke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2), 61—83.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2.061>
- Park, Jungsu & Yoo, Hyun—joon (2007). The Recovery of 'Placeness' in Old Seoul Station : Focusing on preservation and use at a regenerative leve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onference papers.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Seol, Moon—won (2019). Exploring the Concepts of Records as Persistent Representation of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9), 5—46. <https://doi.org/10.20923/kjas.2019.59.005>
- Won, Da Sol & Lee, Min (202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ulture Contents by Applying the Concept of Archiving — Focusing on the case of archiving an area as a place of daily life.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8(3), 167—180. <https://doi.org/10.17548/ksaf.2020.06.30.167>